



#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연수국가 : 인도
- 연수기간 : 2018. 1. 21 ~ 1. 26

# 목 차

I. 연수개요 .....	03
1. 연수 목적 .....	03
2. 연수 국가 .....	03
3. 연수 기간 .....	03
4. 연수 대상 .....	03
II. 연수 일정 .....	04
III. 연수국 현황 .....	06
IV. 주요연수내용 .....	08
1. 공식방문 : 아그라의회 .....	08
2. 역사·문화유산 관리 분야 .....	10
V. 정책 시사점 및 총평 .....	15

# I. 연수 개요

## 1. 연수 목적

- 개혁·개방·선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인도를 방문하여 자치 제도 및 분야별 시책 비교 시찰
- 문화유산의 보전 및 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우리 지역 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 해외연수를 통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동기부여 및 의정업무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지식 및 기초자료 습득

2. 연수 국가 : 인도

3. 연수 기간 : 2018.1.21. ~ 1.26. (4박6일)

4. 연수 대상 : 11명 (군위군의회 의원 7명, 직원 4명)

연번	직위	성명	비고
1	의 장	김영호	
2	부 의 장	박창석	
3	의 원	김윤진	
4	의 원	김정애	
5	의 원	심 칠	
6	의 원	김휘찬	
7	의 원	홍복순	
8	의회사무과장	장근중	

9	전문위원	김조훈	
10	의사담당	박정목	
11	행정7	김수향	

## II. 연수 일정

일자	도시명	세 부 일 정
제1일	인천 - 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국제공항 출발</li> <li>■ 델리 국제공항 도착</li> </ul>
제2일	델리 - 바라나시 - 사르나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델리 국제공항 출발</li> <li>■ 바라나시 국제공항 도착</li> <li>■ 문화유산 탐방 : 다메크 스투파, 스리랑카 사원, 아르띠 푸자</li> <li>■ 시찰 : 고고학 박물관</li> <li>■ 체험 : 사이클 리샤 탑승</li> </ul>
제3일	바라나시 - 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 탐방 : 갠지스강 일출</li> <li>■ 바라나시 국제공항 출발</li> <li>■ 델리 국제공항 도착</li> <li>■ 문화유산 탐방 : 인디아 게이트, 라지가트, 꾸뚝 미나르(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li> </ul>

제4일	델리 - 아그라 - 파테푸르시크리 - 아그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방문 : 아그라 시청</li> <li>■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파테푸르 시크리</li> </ul>
제5일	아그라 - 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찰 : 아그라성</li> <li>■ 시찰 : 타지마할</li> <li>■ 델리 국제공항 출발</li> </ul>
제6일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국제공항 도착</li> </ul>

### Ⅲ. 연수국 현황



#### 1. 일반사항

- 국 가 명 : 인도공화국(Republic of India)
- 수 도 : 뉴델리(New Delhi)
- 인 구 : 약 12억 5천만명(세계 2위)
- 면 적 : 약 330만km<sup>2</sup>(세계 7위, 한반도 15배)
- 민족 구성 : 인도아리안 72%, 드라비디안 25%, 기타 3%
- 종 교 : 힌두교(80.5%), 이슬람교(13.4%), 기독교, 시크교, 불교, 자이나교
- 시 차 : 우리시간-3시간 30분
- 언 어 : 힌두어, 영어

#### 2. 정치현황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의회구성 : 양원제
  - 상원 245석(임기 6년)
  - 하원 545석(임기 5년)
- 주요인사
  - 대 통 령 : Pranab Mukherjee
  - 총 리 : Narendra Modi
  - 외교장관 : Sushma Swaraj
  - 상원의장 : Mohammad Ansari(부통령 겸임)
  - 하원의장 : Sumitra Mahajan

### 3. 경제현황

- 총 GDP : 2조907억불(2015 IMF)
- 1인당 GDP : 1,617불(2015 IMF)
- 교 역 : 7,768억불(2013, 2014 회계연도)
  - 수출 : 3,175억불 / 수입 : 4,593억불
- 경제성장률(GDP) : 7.3%(2015, 2016 회계연도)
- 산업구조 : 서비스업 65%, 제조업 18%, 농업 17%
- 주요산업 : 석유화학, 제약, 기계, 광산업, 보석가공, IT 산업, 통신, 자동차, 인프라 건설업 등

### 4. 한국과의 관계

- 수교일자: 1973.12월
- 교민현황 : 약 1만 1천명('15)
- 입출국자현황 : 약 26만명('15)
  - 한국인 인도방문 : 약 10만9천명
  - 인도인 한국방문 : 약 15만4천명

## IV. 주요연수내용

### 1. 공식방문 : 아그라 시청

#### 가. 방문목적

- 선진화된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인도의 아그라시청을 방문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정치제도 및 운영의 비교분석

#### 나. 주요내용

- 인도는 오랜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거치면서 의회제도를 비롯한 민주주의 제도에 있어 선진화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인도는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정치는 의회에서 펼쳐지고 대통령은 교육과 국방을 통솔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인 델리 대나 자와할랄 네루대학교의 이사장은 현 대통령이며 총장은 부통령이 겸하고 있다. 인도의 국회는 라자 사바(상원)과 록 사바(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45석이다.
- 연방 공화국인 인도는 29개 주와 7개 연방 직할 주로 구성 되어있는데, 연방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 실행되어야 할 국방, 외무, 국가경제, 통신, 교통, 화폐 주조, 대법원, 고등법원 운영들을 책임진다. 그리고 주 정부는 치안, 공중 보건, 교육, 자원 관리 등을 하고 책임진다.
- 연수단이 방문한 아그라시는 델리의 200km 거리에 위치한 지방행정 중심지다. 아그라시는 타지마할, 아그라성 등 6개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화학 공업도시이기도 하다. 아그라



시의회의 의원수는 총 100명이며, 임기는 6년이다. 2010년 여성 의원 할당제 법안이 통과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여성 의원의 비율은 연방 하원 10.8%, 연방 상원 8.8%, 지방의회 8.5%다.

- 작년 2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한 달간 인도의 5개 주에서 지방의회 선거가 개최되었는데, 유권자 수만 무려 1억 6000만 명에 달하는 최대의 지방선거였다고 한다. 아그라시가 위치한 UP주는 인도 정치의 1번지로, 이번 선거에서는 집권여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아그라시청 방문 현장>

## 2. 역사·문화 유산 관리 분야

### 가. 방문목적

- 역사·문화 유산의 보전 및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방안 모색

### 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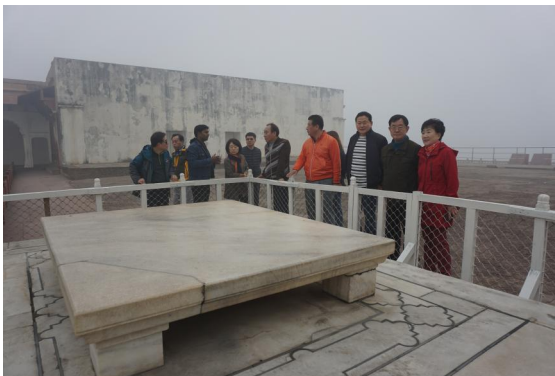
#### <타지마할>

-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무굴황제 샤 자한이 먼저 죽은 왕비를 추모하기 위하여 22년에 걸쳐 지었다는 인도 최고의 건축물이다. 건물 전체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며, 높이와 가로 길이가 55m로 같다. 내부 정중앙에 왕비의 무덤이 있고 바로 옆에 나중에 옮겨온 왕의 무덤이 있다.
-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역사문화유적의 보전을 위해 타지마할 입장 시 입장료의 2배에 해당하는 유적보존기금을 함께 징수하고 있다. 방문객이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료에 포함된 덱신을 신어야 한다. 주차장에서 타지마할 정문까지는 약 1km 정도로 미니버스를 사용해서 이동한다.



### <아그라 성>

- 아그라 성은 타지마할과 야무나 강변 북서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있는 성으로, 인도의 세계문화유산 제1호다. 타지마할을 축조한 샤 자한이 말년에 그의 아들에 의해 유폐된 곳이기도 한데, 천연 해자를 이용해 군사적 목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도 성 부지의 80%는 인도 군대의 주둔지라고 한다.
- 성의 규모가 대단하지만 현재 1/4 정도만 일반 관광객에게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성을 빙 둘러싼 해자가 있으며 높이 20m, 길이 2.5km가 되는 성벽이 이중으로 성을 감싸고 있다. 성벽 내부에는 크고 작은 궁전과 모스크, 정원, 분수대 등이 있다.



### <꾸뽀프 미나르(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양식이 혼합된 높이 73m의 5층 석탑이다. 12세기 무슬림이 인도 정복을 기념하여 세운 탑으로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이기도 하다. 1층은 힌두양식, 2·3층은 이슬람양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각층 사이에 발코니가 있고, 내부는 나선형의 379 계단이 있다.
- 1193년 건설 당시에는 4층이었고, 1326년 5층으로 새롭게 개축했

다. 당시에는 지붕에 둥근 돔이 씌워져 있었다고 하는데, 1829년 델리를 엄습한 지진으로 돔은 파괴되었다. 이후 영국 식민지 시절 영국군 장교가 무굴 양식의 돔을 새롭게 올렸지만, 탑의 모양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마 후 철거했다고 한다.



#### <파테푸르 시크리(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파테푸르 시크리는 인구 29,000명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로, 1571년~1585년까지 무굴 제국의 수도였다. 왕궁은 인도에서 무굴 제국의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장소로 평가되어, 1986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아그라로 수도 이전 후 약 400년 간 방치된 폐허 도시에 있던 왕궁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되자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로 도시는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한다.

○ 왕궁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물은 ‘판치마할(Panch Mahal)’이다. 이곳은 황제의 개인처소로 벽 없이 176개의 기둥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명 ‘바람의 궁전’이라고 불린다. 판치마할 앞에는 황제가 시녀들을 말 삼아서 장기를 즐겼다는 정원이 잘 정비되어 있다. 판치마할 우측으로는 왕의 접견실이 있는데, 이 건물에는 힌두, 이슬람, 기독교, 자이나교 등 다양한 종교의 건축적인 특징들이 가미되어 있다.





### <라지가트>

- 라지가트는 간디의 화장터이자, 그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추모 공원으로 두개의 박물관과 함께 위치해 있다. 간디의 유해를 화장한 자리에 검은 대리석 추모제단을 두고 있으며, 신발을 벗고 맨발로 입장해야 한다. 대리석 추모제단 정면에는 간디가 남긴 마지막 말 “Hai Ram(오, 라마신이시여)” 라는 구절이 새겨져 있으며, 추모단 위에는 1년 내내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장명등이 있다.
- 추모제단 바깥쪽은 잔디가 넓게 펼쳐져 있으며, 라지가트 주변 또한 숲이 우거진 자연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간디의 추모 뿐만 아니라 델리 시민들이 휴식을 위해 많이 찾고 있었다.



## <사르나트>

- 사르나트는 바라나시에서 북쪽으로 8km쯤 떨어진 작은 마을이다. 부처가 첫 설법을 펼친 사르나트는 인도 4대 불교성지로, 초전법륜지에는 43m 높이의 탑이 세워져 있다. 다메크 대탑(Dhamekh Stupa)은 붉은 벽돌을 구워 쌓았는데, 지름이 28.5m, 높이 40.06m에 달한다. 마우리아 왕조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1층에는 화려한 연꽃문양 등이 새겨져 있고, 중간 중간에 8개의 감실이 위치해 있다. 다메크 대탑을 포함한 몇 개의 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흔적만 남은 유적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 V. 정책시사점 및 총평

### 1. 정책 시사점

-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주주의를 행하고 있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문맹률 35%가 상징하듯이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낮은 점은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종 부정부패와 정치적 무관심 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인도의 선거에 대한 지대한 관심, 선거를 축제로 여기는 분위기, 국민 투표를 통해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는 등의 높은 민주의식은 우리도 배울 만하다고 본다.
- 인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 자연, 복합 유산이 28곳이나 되는 세계 7위의 ‘문화유산 강국’이다. 인도는 다양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소지품 휴대 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차량의 매연이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차장을 먼 거리에 건설하고, 전기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역사문화유적이 많은 우리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2. 총평

- 다양성의 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고 의회제도,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화 분야의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에서 보고 얻은 소중한 자료와 경험을 기반으로 시책 개발 등 경쟁력과 비전을 갖춘 의정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